

## 대학영어 배치고사로서의 CEFR 기반 CELA 와 TOEIC 비교 연구

강경민\*

**Kang, Kyungmin. (2021). A comparison of TOEIC and CEFR based CELA as a college English placement test. *English Teaching*, 76(4), 123-141.**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CEFR-based CELA can be presented as a placement test for TOEIC. Data collected from 1,142 college freshmen who participated in both tests were analyzed to determine: 1) how hypothetical levels of a CELA score differed from existing TOEIC levels; 2) if there was an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est scores and final grades; and 3) how native English professors viewed CELA as a placement test. The analysis revealed that CELA did not perform better a placement test than TOEIC. It did not have a higher correlation with the final grade either. However, the fact that CELA is more aligned with the content and objective of the English course and that most native English professors consider CELA more suitable as a placement test can be seen as positive factors supporting it to replace the existing placement test. Results of this study if curriculum and student levels are different.

**Key words:** CEFR, CELA, college English, placement test, TOEIC/유럽연합 공통언어 표준등급, 캠브리지 영어 평가, 대학영어, 배치고사, 토익

---

\*Author: Kyungmin Kang, Professor, Institute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65, Geumsaem-ro 485-gil, Geumjeong-gu, Busan 46234, Korea; Email: [kelly.kyungmin@gmail.com](mailto:kelly.kyungmin@gmail.com)

Received 2 September 2021; Reviewed 18 October 2021; Accepted 21 December 2021



© 2021 The Korea Association of Teachers of English (KAT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4.0, which permits anyone to copy, redistribute, remix, transmit and adapt the work, provided the original work and source is appropriately cited.

## 1. 서론

모국어를 달리하는 사람들의 상호 이해를 위하여 영어는 링구아프랑카(*lingua franca*)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상당량의 정보와 지식도 영어로 생산된다. 한국의 대학들은 양질의 정보를 가려내어 습득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영어 프로그램의 개선과 강화에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학 영어교육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도달 수준이 분명하게 나타난 교육 목표의 설정, 단계별 목표 제시, 구체적인 평가 항목 구성, 로드맵에 맞춘 연계 과정 제공 등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준에 따라 과정, 목표, 평가는 다르게 구성되므로 정확한 수준의 분반에 배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준별 분반 편성을 위해서는 배치고사(*placement test*)를 실시해야 하고, 배치고사의 필요성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 *Fulcher(1997)*는 배치고사는 언어 학습 수준이 낮아서 학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수를 파악하여 이를 최소한으로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으며, *Brown(2005)*은 학생들이 배치고사를 통해 적합한 수준별 수업을 받을 경우, 교수자가 학습자들의 취약점이나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쉽게 지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Bachman(1990)*은 자신의 수준보다 높은 반으로 배정받은 학생들은 수업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며, 자신의 수준보다 낮은 반으로 배정받게 된 학생들은 쉬운 수업에 흥미를 잃게 되어 학습능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수준별 분반을 위한 배치고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학이 배치고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Yu, Moon*과 *Shin(2007)*은 대학 영어프로그램에서의 배치고사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에 위치한 5개의 대학을 조사하였는데, 이 중 2개의 대학만이 교양영어 수강 전 배치고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치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는 수강 전 배치고사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나마 활용 용이성이 있는 TOEIC(*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유형의 시험은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신학기 시작 전에 배치고사의 시행 일정을 잡기 어렵다는 점으로 조사되었다. 36개의 대학의 교양영어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조사한 *Kim*과 *Lim(2013)*에 의하면, 4년제 대학은 50%의 대학만이 교양영어 수강 전 배치고사를 실시하였고, 2년제나 3년제 대학은 16.7%만이 배치고사를 실시하였다. 배치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도 영어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에 맞는 자체 시험을 개발하기보다는 외부 영어 시험을 사용하고 있었다. 기관에 위탁하여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모의 TOEIC 시험의 경우, 배치고사를 실시하는 16개의 대학 중 68.8%에 해당하는 11개의 대학이 활용하고 있었다(*Kim & Lim, 2013*). TOEIC은 공신력이 있기는 하나 해외과건 인원 선발, 승진 등의 목적에 활용되는 국제 업무에 필요한 비즈니스 영어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학문 영어 능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대학 영어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배치고사로 보기는 어렵다.

배치고사란 학생들의 언어 능력 정도를 평가하여 적절한 수업에 배치하기 위해 계획된 시험으로(Hughes, 2003), 학생들의 학습할 교과과정의 학습 목표와 연관성이 뚜렷해야 한다(Brown, 1996, 2005). 이에 학습자나 교수자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교육 기관이 직접 개발하는 것이 가장 권장되는 방법이다(Hughes, 2003). 하지만 시험 개발에 많은 시간과 재원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볼 때 배치고사를 대학이 자체 제작하여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연구의 대상인 부산에 위치한 4년제 사립대학의 경우도 교양영어 수준별 분반을 시작한 이후 TOEIC을 배치고사로 활용하고 있다. 전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2월 중순의 정규 배치고사와 2월 말의 추가 배치고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4개의 수준별 분반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학교의 교양영어 과정은 영어 원어민 교수가 담당하는 내용 중심(Content-based), 과업 중심(Task-based)의 회화 수업으로, 다양한 주제에 관한 과업을 학생 스스로 영어를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4영역을 다 아우르는 원서를 교재로 활용하여 실생활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영어구사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각 수준별로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기관 및 업체에서 입사, 승진 또는 해외파견 인원 선발 시 필요한 비즈니스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듣기와 읽기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TOEIC은 해당 학교 교양영어의 목적과도 다르며, 대학 교양영어 분반 배치고사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또한 국제업무 상황에 사용되는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낮은 점수로 초급반에 배치되어 변별력에 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자체 배치고사를 개발할 여건이 되지 않았기에 교양영어의 목표와 내용에 좀 더 부합하는 시험 유형을 찾고자 하였고, CEFR(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 기반의 CELA(Cambridge English Language Assessment)가 TOEIC의 대안으로 대두되었다.

CELA는 전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는 시험으로서 학습자의 영어 역량 정도에 따라 Cambridge English Qualifications(CEQ)의 레벨을 선택할 수 있으며, 결과 점수인 Cambridge English Scale Score(CESS)에 따라 CEFR(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레벨이 부여된다. CEFR 레벨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4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서의 언어 수준의 표준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수준별 분반에 유용하다.

해당 대학은 TOEIC의 대안으로 제시된 CELA의 적용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월 중순경 교양영어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파일럿 개념의 CELA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ELA를 배치고사로 사용했을 때의 가상 수준별 분반을 만들고, 이를 현재의 TOEIC 점수의 분반과 비교하여 다음의 연구 문제에 답하고자 한다.

1. CELA 점수의 수준별 분반은 TOEIC 점수의 수준별 분반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2. CELA 점수와 TOEIC 점수는 성취도를 나타내는 학점과 상관관계가 있는가?
3. 교양 영어를 담당하는 원어민 교수자들은 TOEIC 과 CELA 중 어떤 시험이 배치고사로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 2. 선행 연구

### 2.1. 교양영어 배치고사 관련 연구

교양영어 배치고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는 한국 대학의 배치고사 현황을 조사한 연구(Yu, Moon, & Shin, 2007) 배치고사 개발에 관한 연구(Kim, 2006), 배치고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험들의 유형을 비교하는 연구(Cho & Park, 2011; Ryu, 2013), 배치고사로 인한 오배치의 이해도 차이를 검토한 연구(Kim, 2006), 배치고사의 유효성을 조사하는 연구(Leaper, 2010), 배치고사의 구인 타당도를 확인한 연구(Pyo, 2001), 배치고사의 예측 타당도를 알아본 연구(Lee & Greene, 2007) 등이 있다.

다른 유형의 시험을 실시하여 배치의 정도 및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수능과 TOEIC을 비교한 Cho와 Park(2011)의 연구와 자체개발 시험과 TOEIC을 비교한 Ryu(2013)의 연구로 정리된다. Cho와 Park(2011)은 수능의 영어 영역 점수로 분반이 된 학생들을 TOEIC 점수로 재배치하였을 때의 오배치 비율을 알아보았는데, 40.99%의 학생들이 원 분반과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교수자 설문 조사에서도 50%의 학생들이 오배치 되었다는 반응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배치고사를 자체 개발할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 수능 영어 점수로 분반을 하기보다 TOEIC을 배치고사로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Ryu(2013)는 자체 제작 배치고사인 LPT로 분반된 학생들을 TOEIC 점수로 재배치하여 일치/불일치 정도를 분석하였는데, 50% 정도만 원 분반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체 개발 배치고사가 상위 수준에 대한 변별력이 낮다는 사실과 학점과의 상관관계도 TOEIC 보다 약하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자체 개발 배치고사보다는 TOEIC이 배치 기능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능과 자체개발 배치고사를 대상으로 TOEIC을 비교한 두 연구 외에는 배치고사 시험 유형을 비교한 연구를 찾기 어려웠다.

영어 배치고사와 영어 교과목 학점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내용은 Lee(2011)와 Ryu(2013)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었다. 영어권 국가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영어 배치고사 점수와 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선행 연구(Ayers & Peters, 1977; Bellingham, 1993; Cotton & Conrow, 1998; Fiocco, 1992; Jones & Michael, 1964; Lee, & Greene, 2007; Light, Xu, & Mossop, 1987)는 많았으나 한국 교육과정에서 영어 배치고사와 영어 학점과의 연관성을 알아본 연구는 이 두 연구 외에는 찾을 수 없었다. Lee(2011)는 CEFR 기반 배치고사 레벨과 학점과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하여 CEFR 배치고사와 학점이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점은 학생의 말하기 역량 평가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기의 참여도, 출결, 성취 정도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에 말하기 배치고사와 학점의 연관성이 낮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Ryu(2013)는 자체 제작 배치고사와 학점과의 상관관계, TOEIC과 학점과의 상관관계를 각각 조사하였고, TOEIC 점수가 전 레벨에서 학점과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자체 제작 배치고사 점수는 레벨에 따른 정도 차이는 있었으나 학점과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 2.2. CEFR 기반 배치고사 관련 연구

CEFR 기반의 시험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는 CEFR의 배치고사 적용성을 조사한 Lee(2011)의 연구가 유일했다. Lee(2011)는 배치고사와 교양영어나 커리큘럼 개발에 CEFR 적용 가능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CEFR 기반의 자체 말하기 시험을 실시하였고, 연구 결과, 기존 배치고사 분반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CEFR 점수의 평균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상위 수준 분반에서는 CEFR 말하기 수준에 비해 기존 배치고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학생들이 많았고, 하위 수준 분반에서는 CEFR 성적과 비교하여 기존 배치고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학생들이 많았다는 것이 나타났다.

Cambridge English Language Assessment(CELA)를 국내 교양영어나 환경에서 활용하였거나 배치고사로 사용한 연구는 전무했다. CELA는 학습자들에게 영어를 배우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실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언어기술을 발달시키는 시험이다. CELA는 시험 응시 목적에 따라 School, General and higher education, Business로 구분되며, Pre A1부터 C2 레벨까지의 Cambridge English Qualifications(CEQ)로 구성되어 있다. 각 CEQ의 시험은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CEFR)의 수준에 맞추어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문제가 제시되고, 결과는 Cambridge English Scale Score(CESS)로 계산된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CESS 점수를 제외하고는 CEFR의 6단계 수준으로 환산가능하다.

CEFR 기반 배치고사에 대해 다루고 있는 연구가 거의 없고, CELA에 대한 연구나 다른 시험과의 비교 연구도 전무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배치고사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해당 학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TOEIC과 CEFR 기반 시험인 CELA를 비교해 볼 것이다. 두 시험 결과로 수준별 분반을 할 경우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영어 학점과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지, 교양영어나 과정을 담당하는 원어민 교수자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 확인하고, CELA를 배치고사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려고 한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 대상

2월에 TOEIC 배치고사를 치르고 수준별 분반에 배정받은 신입생은 총 1,819명으로, 최상위반인 영어특기자반(EP) 25명, 고급반(Advanced) 65명, 중급반(Intermediate) 179명, 초급반(Beginner) 1,550명이 각각 배정되었다. TOEIC 900점 이상의 공인영어성적을 미리 제출해야하는 영어특기생들을 제외한 모든 신입생들은 TOEIC 배치고사 점수로 분반되었으며, 신입생 분반 총 61개에 한 분반당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배치되었다.

해당 학교의 교양영어인 College English는 2학기에 걸쳐 6학점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이며, 1학년 기간내에 수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담당 교수는 전원 영어 원어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시간대가 다르게 배치된 4분반을 맡고 있다. 교재는 분반에 맞추어 Oxford ESL/EFL 원서의 CEFR 수준을 달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과업을 개발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평가의 유형은 기본적으로 담당 교수의 재량에 맡기지만, 대부분은 수업 전반적으로 이어지는 과업을 확장한 형태로 행해진다. ‘Perfect English 보다 Fluent English’를 기조로 실제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학생들은 일주일에 3시간의 수업을 참여하고 있다.

교양영어 분반에 배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5월에 CELA를 실시하였고, TOEIC 점수와 CELA 점수를 모두 보유한 1,142명을 선별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 3.2. 연구 도구 및 절차

해당 대학의 기존 배치고사는 2월 중순의 정규 배치고사와 2월 말의 추가 배치고사로 구성되어 있다. LC 영역 100문항, RC 영역 100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20분이 소요되는 ETS와 동일한 형식의 온라인 TOEIC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수도 실제 기준에 맞추어 990점으로 채점한다. 배치고사 미응시 시, 해당 년도에 영어교양과목을 신청할 수 없게 하여 최대한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실시 이후 매년 80~83%의 신입생들이 응시하고 있다. 2020년에는 2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온라인 TOEIC 배치고사를 실시하였고, 81.5%의 참여율을 보였다. 결과 점수에 따른 분반은 2월 셋째 주와 3월 첫째 주에 각각 안내하여 수강 신청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치고사 변경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 CELA는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의 4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2 레벨은 Reading과 Writing을 통합된 형태의 문제가 출제된다. A2 레벨은 Reading & Writing 9파트 55문항, Listening 5파트 25문항, Speaking 2파트로 나뉘어져 있고, B1 레벨은 Reading 6파트 32문항, Writing 2파트 2문항, Listening 4파트 25문항, Speaking 4파트로

나뉜다. Speaking은 문항수 대신 제한 시간으로 제시되는데, 비대면 시험이기에 응답에 필요한 시간 외에 녹음파일을 업로드하는 시간까지 계산하여 제한 시간을 설정하였다.

1학기 9주차의 수업을 대신하여 5월 셋째 주에 CELA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후, 6주차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담당 교원들의 허락을 구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CELA 시행일은 기존 배치고사와 2개월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었는데, 인력 부족, 재정 확보 등 여건 상 1,819명의 시험을 준비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했지만, 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시작된 초기 시점이라 정규 수업 운영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시험 실시를 서두를 수가 없었다. 두 시험 간 실시 간격이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향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기에 2주차부터 8주차까지 수업을 진행한 담당 원어민 교수들에게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2개월 전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13명 전원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Zoom이나 Video Lecture와 같이 익숙하지 않은 형태로 수업, 퀴즈, 과제 등을 하는 데 적응을 마친 정도라고 알려졌다.

9주차 수업은 교원들의 동의 하에 CELA 참여로 대체하였고, 학생들은 2시간 30분 가량의 CELA에 응시하면 9주차의 출석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초급반과 중급반 용으로는 A1 미만부터 A2 수준 이상을 가려낼 수 있는 A2 레벨의 시험을 준비하였고, 고급반과 영어특기자반 대상으로는 B1 수준 미만부터 B2 수준까지 가려낼 수 있는 B1 레벨의 시험을 준비하였다. 학교 온라인 플랫폼을 빌려 4영역 16파트로 구성된 레벨별 문항을 탑재하였고, 온라인 트래픽을 줄이기 위해 해당 주의 토요일 오전에 시험을 실시하였다. 명확한 안내를 위해 CELA 실시 10일 전부터 영어 및 한국어로 시험 응시 방법 및 유의 사항을 공지하였고, 문의 사항은 담당 직원이 응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JASP(ver.0.13.1.0)를 사용하여 TOEIC 배치고사와 CELA에 모두 참여한 1,14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CELA 점수로 수준별 분반을 재배치한 후, 현재의 TOEIC 점수 분반과 비교하여 분반 일치/불일치 비율을 알아보았으며, 일원배치 분산분석으로 수준 간 평균 차이가 유의한 지를 확인하였다. 정규분포 정도를 알기 위해 중심 적률 정보인 왜도와 첨도를 구하였으며, 두 시험 간 상관관계를 포함하여 수준 별로 시험 간 상관관계가 있는지, 학점과의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연구 결과

### 4.1. CELA 점수의 수준별 분반은 TOEIC 점수의 수준별 분반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학기 초 수준별 분반은 2월 둘째 주와 2월 마지막 주 두 차례 실시한 TOEIC 배치고사의 결과로 배정되었다. 누적된 이전 신입생들의 배치고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준별 예상 배정 비율과 분반 수가 정해졌으며, 상위 점수를 획득한 순서대로 영어특기자반, 고급반, 중급반, 초급반으로 배치되었다. 표 1은 전체 신입생 중 TOEIC 배치고사에 응시한 1,819명의 분반 배정 현황으로, 예상 배정 비율과 실제 배정 인원 및 배정 비율, 각 분반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Placement Results Based on the TOEIC Score

Course	Estimated Percent	Number of Students Assigned	Actual Percent	TOEIC Score Range	Score Gap Between Highest and Lowest	Average TOEIC Score
EP	1~2	25	1.4	905-990	85	946.7
Advanced	3.5~4.5	65	3.6	690-895	205	773.5
Intermediate	9.5~10.5	179	9.8	480-685	205	557.5
Beginner	83~86	1,550	85.2	85-475	390	286.7
Total	100	1,819	100			

초급반에 TOEIC 배치고사 응시자의 85.2%가 배정되었고, 중급반 9.8%, 고급반 3.6%, 영어특기자반 1.4%로 상위 수준 분반도 예상 비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정이 이루어졌다. 각 점수 구간도 예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점수 차이는 가장 많은 인원이 배치된 초급반이 단연 높았지만, 최저점 수준은 몇 명에 그쳐 다른 수준별 분반과의 평균 차이는 크지 않았다.

TOEIC 점수 수준별 분반을 대상으로 5월 셋째 주에 CEFR 기반의 CELA를 실시하였고, TOEIC과 CELA 두 점수를 모두 보유한 1,142명을 추려 내었다. 분반 별 CELA 점수는 표 2와 같다. 수준별로 점수가 확연히 구분되는 TOEIC과는 다르게 CELA 점수는 각 수준별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의 겹치는 구간이 많았다. 초급반과 중급반의 경우는 점수대가 거의 같았으며, 심지어 최고점은 초급반이 더 높았다. TOEIC 점수와 CELA 점수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으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r = .844, p < .001$ ).



**TABLE 2**  
**CELA Score for Each Course Level**

Course	Number of Students	Average TOEIC Score	CELA Score		
			Lowest Score	Highest Score	Average Score
EP	23	946.7	138	170	159.17
Advanced	49	773.5	102	164	146.51
Intermediate	143	564.1	88	146	125.67
Beginner	927	280.6	82	148	107.85
Total	1,142				

CELA 점수로 수준별 분반을 할 경우 TOEIC 점수 분반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고, 먼저 표 1에 제시한 기존 분반 배정 비율에 맞추어 분반을 하였다. CELA 점수로 가상 수준별 분반을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TABLE 3**  
**Placement Results Based on the CELA Scores**

Course	Number of Students	Percent	CELA Score Range	Score Gap Between Highest and Lowest	Average CELA Score
EP	16	1.4	164-170	6	167.0
Advanced	41	3.6	144-161	17	152.5
Intermediate	112	9.8	124-143	19	133.5
Beginner	973	85.2	82-123	41	102.5
Total	1,142	100			

TOEIC 점수 분반과 동일한 배정 비율로 분반하였을 때, 수준별 분반의 점수 차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점수 차이는 CELA 점수 분반에서 훨씬 적게 나타났기에, 두 시험의 수준별 평균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등분산을 만족하지 않았기에, Welch's AVOVA를 실시하였고, TOEIC 점수( $F(3,87.18)=4656.3, P < .001$ )와 CELA 점수( $F(3,75.37)=362.7, P < .001$ ) 두 점수 모두에서 수준별 평균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ames-Howell 사후검정에서도 유의확률 .001 수준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CELA 점수로 가상 수준별 분반을 실시한 후, TOEIC 점수 분반과의 차이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각 분반의 일치 정도를 표 4로 비교해 보았다. 두 시험에서 수준별 분반이 일치한 부분은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TABLE 4**  
**Score Cross Tabulation**

		Course Placed on CELA Score				
		EP	Advanced	Intermediate	Beginner	Total
EP	Number of students	13	8	2	0	23
	Percent	56.5	34.8	8.7	0	
Course placed on TOEIC score	Advanced	3	33	11	2	49
	Percent	6.1	67.3	22.4	4.1	
Intermediate	Number of students	0	0	96	47	143
	Percent	0	0	67.1	32.9	
Beginner	Number of students	0	0	3	924	927
	Percent	0	0	0.3	99.7	
Total		16	41	112	973	1,142

일치 정도를 비교한 결과, 상위 수준의 분반일수록 기존 레벨과 상이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제일 상위 수준인 영어특기자반의 경우, CELA 점수로 분반했을 때 TOEIC 점수 분반 유지 비율이 56.5%에 그쳤는데, 43.5%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영어특기자반을 유지하지 못하고 고급반이나 중급반으로 하위 조정되었다. 고급반과 중급반은 CELA 점수로 분반했을 때 TOEIC 점수의 분반을 유지하는 비율이 67%, 달라지는 비율이 33%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고급반은 CELA 점수로 분반할 경우 영어특기자반으로 상위 조정되는 비율이 6.1% 정도였고, 상이 비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2.4%의 학생들이 중급반으로 하위 조정되었다. 심지어 초급반에 배치되어야 하는 비율도 눈에 띄었다. 중급반은 CELA 점수 분반 결과, 상위 수준으로 배치되어야 하는 인원은 나타나지 않았고, 초급반으로 하위 조정되어야 하는 비율이 32.9%로 나타났다. 영어특기자반에 비하면 두 분반 다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비율이 높기는 하나 하위 조정되어야 할 비율도 전체 1/3에 가까웠다. TOEIC 점수 수준별 분반에서 대부분의 인원이 배치된 초급반이 CELA 점수 분반과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기존 TOEIC 점수 분반을 유지하는 비율이 99.7%, 927명 중 924명에 달했고, 0.3%에 해당하는 3명만이 상위 수준인 중급반으로 배정될 수 있었다. 분반 별 기존 레벨 유지 학생 수와 비율을 정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TABLE 5**  
**Number and Percent of the Level Maintained and Level Changed**

Course Placed on CELA Score	Number of Level Maintained	Percent of Level Maintained	Number of Level Changed	Percent of Level Changed
EP	13	56.5	10	43.5
Advanced	33	67.3	16	32.7
Intermediate	96	67.1	47	32.9
Beginner	924	99.7	3	0.3
Total	1,066		76	

CELA 점수로 분반했을 경우, 상위 수준의 분반일수록 기존 TOEIC 점수의 분반과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표 6의 TOEIC 점수와 CELA 점수의 왜도와 첨도로 설명할 수 있다.

**TABLE 6**  
**Skewness and Kurtosis of TOEIC Score and CELA Score**

	Skewness	Kurtosis
TOEIC score	1.56	2.17
CELA score	0.51	0.29

TOEIC 점수는 왜도가 1.56, 첨도가 2.17로, 초급반에 해당하는 200점부터 400점 후반 사이의 낮은 점수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가운데 상위반의 높은 점수가 있어 도수 곡선이 뾰족한 정적 편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CELA 점수는 왜도가 0.51, 첨도가 0.29로 정규 분포에 가까운 곡선을 나타낸다. 이는 CELA 점수를 기준으로 가상 수준별 분반을 만들고 TOEIC 점수의 분반과 비교했을 때, 기존 TOEIC 배치고사의 상위 분반 학생들이 CELA 분반에서는 더 낮은 분반으로 배치되는 결과와 일치한다.

#### 4.2. CELA 점수와 TOEIC 점수는 성취도를 나타내는 학점과 상관관계가 있는가?

TOEIC 점수와 CELA 점수를 모두 보유한 1,142명 중, 37.3%에 해당하는 426명을 대상으로 교양영어 학점과 TOEIC 점수, CELA 점수 각각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분반 수가 적은 영어특기자반과 고급반은 23명과 49명, 전체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급반은 중급반 인원의 63.6%에 해당하는 91명을, 초급반은 초급반 인원의 28.4%에 해당하는 263명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TABLE 7**  
Correlation Between Test Scores and Final Grade

	TOEIC	CELA	Final Grade
TOEIC	1		
CELA	.844***	1	
Final grade	.348***	.327***	1

\*\*\* $P < .001$

TOEIC 점수, CELA 점수, 교양영어 학점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TOEIC과 CELA, 두 시험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 = .844, p < .001$ ). 시험 점수와 학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기는 하나, TOEIC 점수와 학점과의 상관관계( $r = .348, p < .001$ ), CELA 점수와 학점과의 상관관계( $r = .327, p < .001$ ) 모두 비교적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TOEIC 점수가 높을수록 CELA 점수도 높을 가능성이 크고, 시험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학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초급반을 제외한 각 수준별 분반 분석에서는 두 시험 간이나 시험과 학점과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초급반의 경우, TOEIC과 CELA, 두 시험 간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았으며( $r = .474, p < .001$ ), TOEIC 점수와 학점과의 상관관계( $r = .189, p < .05$ ), CELA 점수와 학점과의 상관관계( $r = .15, p < .05$ )는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초급반을 제외한 상위 수준 분반들에서는 기존 배치고사인 TOEIC과 CEFR 기반의 CELA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 시험과 학점과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중급반, 고급반, 영어특기자반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각 수준별 분반의 시험 점수와 교양영어 학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TABLE 8**  
Correlation Between Test Scores and Final Grade at Each Level

Course	Correlation	TOEIC	CELA	Final Grade
Beginner	TOEIC	1		
	CELA	.474***	1	
	Final grade	.189*	.15*	1
Intermediate	TOEIC	1		
	CELA	0.194	1	
	Final grade	-0.024	0.064	1
Advanced	TOEIC	1		
	CELA	0.119	1	
	Final grade	0.109	0.073	1
EP	TOEIC	1		
	CELA	0.287	1	
	Final grade	0.337	0.227	1

\* $p < .05$  \*\*\* $p < .001$

상위 수준 분반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전체적으로 두 시험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측정되고, 학점과의 상관관계도 보인 것은 시험 응시자의 대부분이 초급반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초급반은 기존의 TOEIC이나 CEFR 기반의 CELA 중 어떤 시험을 배치고사로 치던 초급반이라고 분류되는, 비교적 비슷한 점수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3. 원어민 교수자들은 TOEIC 과 CELA 중 어떤 시험이 더 배치고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교양영어를 담당하는 원어민 교수 13명을 대상으로 기존 배치고사인 TOEIC과 CEFR 기반의 CELA 중, 어떤 시험이 더 배치고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와 더불어, CELA 점수로 가상 수준별 분반을 배정했을 때 왜 많은 상위 수준 분반 학생들이 하위 수준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먼저, 두 시험 중 배치고사로 어느 시험이 더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교수자 대부분이 CELA를 선택하였다. 기존 배치고사인 TOEIC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고, 두 시험 다 배치고사로 사용가능하다는 의견이 3명, CEFR 기반의 CELA를 배치고사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10명으로 집계되었다.

두 시험 다 배치고사로 사용 가능할 것 같다고 답한 교수들은 어느 시험을 실시하던 시험 점수대로 분반이 가능하기에 특별한 차이를 모르겠다고 이유를 밝혔고, CELA를 선택한 교수들은 CEFR 기반의 시험이 영어의 4영역을 통합하여 수준을 구분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배치하는 데 있어 더 세밀하며, 상위 수준의 학생들을 분류하는 데 적합하다고 하였다. CELA를 선택한 원어민 교수들 중 두 명-A, B의 인터뷰에서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My choice would be the CEFR CELA because the CEFR test is more detailed in placing students, and it integrates 4 parts of the English to distinguish between the levels.(교수 A)

Personally, I like the CEFR test more for the higher-level classes. I felt like the CELA questions were fine for assessing them.(교수 B)

CELA 점수로 가상 수준별 분반을 배정했을 때, 상위 분반의 많은 학생들이 하위 수준으로 재조정된 이유에 대해서도 교원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TOEIC과 CELA의 채점 기준이 달라서 그렇다, 시험 유형이 낯설어서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이다 등의 의견이 있었지만,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CEFR 기반의 CELA가 말하기, 쓰기와 같은 생산적 기술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 학생들에게 익숙한 시험 유형인 듣기와 읽기 영역, 즉 수용적 기술에 중점을 둔

TOEIC 보다 어렵다고 느꼈을 것이며, 상위 분반 학생들도 동일한 이유로 하위 수준으로 재분반되었을 것이라 판단했다. 이를 언급한 교수의 인터뷰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would assume that the CEFR assessment focuses on the productive skills a bit more, at least my understanding of it, and TOEIC questions have less focus on production skills in their tests so that might be the reason why. It is interesting, in the Advanced class there are a few students that tested into the class but their writing and speaking are much lower than the other students. When I ask them about the assignments or lectures they say they don't have any trouble understanding me, or their classmates, but when they have to speak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they have some issues. (교수 C)

## 5. 결론

본 연구는 CEFR 기반의 CELA와 TOEIC을 비교하여 TOEIC의 대안으로 제시된 CELA의 배치고사 활용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CELA 점수로 가상의 수준별 분반을 만들어 보았고, 이를 분석하여 기존 TOEIC 수준별 분반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성취도를 나타내는 학점과 상관관계를 나타내는지, 교양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원어민교수자들은 배치고사로서 CELA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TOEIC 점수와 CELA 점수는 모든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기에 두 시험 모두 수준을 크게 그룹별로 나누는 배치고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전체 신입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급반은 CELA 점수로 나눈 가상 수준별 분반에서도 기존 TOEIC 배치고사의 분반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상위 수준 분반인 중급반, 고급반, 영어특기자반은 초급반에 비해 기존 분반 유지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상위 조정되는 고급반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기존 TOEIC 배치고사로 배정된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존의 분반 비율을 기준으로 CELA 분반을 설정하면 초급반에만 인원이 더 배치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말하기, 쓰기까지 4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고, 영역별 달성 목표 및 수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과정 목적에 더 부합할 것이라는 이유로 단순히 배치고사를 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양영어 학점과의 상관관계 측정에서는 TOEIC과 CELA 두 시험 모두 학점과의 연관성은 낮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급반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기는 했지만 연관 정도가 낮았고, 중급반 이상의 상위 수준 반에서는 학점과 각 배치고사 사이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영어 학점이 단순히 영어 역량만을 평가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배치고사와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을 것이라 예측한

바였으나, 기존 배치고사와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배치고사와의 비교를 위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연구 결과, 현 분반 체계에서는 CELA와 TOEIC이 배치 기능에 크게 차이가 없으며, 영어 학점과의 상관관계에서도 비슷한 정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시험이 비슷한 배치 기능을 가지고 있고 학점과의 상관관계에도 차이가 없다면, 영어과정의 내용 및 목표에 더 부합하는 시험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해당 학교의 교양영어 과정은 대학 수학에 필요한 영어능력 향상 및 실제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고, 스킬 중심의 언어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영어구사 능력을 키워주는 언어교육 과정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체적 언어 접근법(Whole Language Approach)을 기반으로 내용 중심 수업(Content Based Instruction)과 과업 중심 수업(Task Based Language Teaching)을 진행하여 4영역을 종합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수업 교재 또한 CEFR 수준이 명시되어 있는 ESL/EFL 원서의 A2 레벨과 B1 레벨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에 중점을 두고 영어 원어민교원이 전 과정의 수업을 맡아 진행한다. 이에 TOEIC 보다는 CELA가 교양영어 과정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양영어 과정을 담당하는 원어민 교수 대부분이 CELA를 배치고사로서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CELA를 배치고사로 채택할 경우, 분반 비율을 CELA 점수 기준에 맞추어 설정해야 한다. 분반 기준도 TOEIC 점수를 기준으로 한 초, 중, 고 단계가 아닌, CEFR의 6단계 수준을 활용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중간 단계를 추가, 삭제하는 등의 과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하위 레벨에 대한 변별력이 낮을 수 있으므로 응시자 수준을 감안하여 CELA 문항의 변별력 정도를 다시 분석한 후 수정 단계를 거친 내부용 시험을 제작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대학을 기준으로 하여 TOEIC 보다 더 적합한 배치고사를 찾고자 했고, CELA를 대안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르게 TOEIC과 같은 듣기와 읽기 시험이 회화 수업의 배치고사에 더 적합하다는 선행 연구도 있다(Wesche, Paribakht, & Ready, 1993). 이는 교과 과정 및 학습 내용이 배치고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Chalhoub-Deville(2003)의 연구에서도 문맥, 즉 학습 내용이 배치고사와 같은 테스트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 내용을 학습하는 데 있어 필요한 역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배치고사이며, 배치고사에서 확인된 수준에 맞춰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학습자나 교수자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교육 기관이 직접 배치고사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권장되는 방법이지만(Hughes, 2003),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수업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적절하고 변별력이 있는 시험을 선택하여 배치고사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에 맞는 배치고사를 선택하는 방법과 더불어 배치고사의 점수로 수준별 분반을 구성하는 방법, 각 수준별 분반의 성취도와 배치고사와의 연관성, 학습자와 교수자가 과정을

완료한 후 제시하는 배치 분반에 대한 만족도나 의견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볼 만하다.

Applicable level: Tertiary

## REFERENCES

- Ayers, J. B., & Peters, R. M. (1977). Predictive validity of the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for Asian graduate students in engineering, chemistry, or mathematic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7*, 461-463.
- Bachman, L. (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Chalhoub-Devile language testing*.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Bellingham, L. (1993). The relationship of language proficiency to academic success for international students. *New Zealand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30*, 229-232.
- Brown, J. D. (1996). *Testing in language programs*.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Regents.
- Brown, J. D. (2005). *Testing in language program: A comprehensive guide to English language assessment (New Edition)*. New York: McGraw Hill.
- Chalhoub-Devile, M. (2003). Second language interaction: Current perspectives and future trends. *Language Testing, 20*(4), 369-383.
- Cho, S., & Park, C. (2011). Investigations of the placement test for a college English program: With a comparison of CSAT and TOEIC. *Modern English Education, 12*(3), 368-383.
- Cotton, F., & Conrow, F. (1998). *An investigation of the predictive validity of IELTS amongst a group of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at the University of Tasmania* (IELTS Research Reports 1998 Vol. 1). Tasmania, Australia: University of Tasmania.
- D. A. Leaper. (2010). Putting students in their place-with Rasch.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24*(1), 151-174.
- Fiocco, M. (1992). *English Proficiency levels of students from a non-English speaking background: A study of IELTS as an indicator of tertiary success*. Unpublished research report, Curtin University of Technology, Perth, Australia.
- Fulcher, G. (1997). An English language placement test: Issues in reliability and validity. *Language Testing, 12*(2), 113-138.
- Hughes, A. (2003). *Testing for language teacher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nes, R., & Michael, W. (1964). The predictive validity of a modified battery of tests in language skills for foreign students at an American universit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14, 961-965.
- Kim, J.-T. (2006). Filling the understanding gap of the misplacement of ESL learner's writing placement test.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2(3), 147-166.
- Kim, S.-H., & Lim J. (2013). The current state of college English education in Korea. *Modern English Education*, 14(2), 263-290.
- Kim, W.-H. (201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English ability assessment tool for level-differentiated English education.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1(1), 203-226.
- Lee, H.-K. (2011). Investigating the applicability of the CEFR to a placement test for an English language program in Korea.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7(3), 29-60.
- Lee, Y.-J., & Greene, J. (2007). The predictive validity of an ESL placement test: A mixed methods approach. *Journal of Mixed Methods Research* 1, 366-389.
- Light, R. L., Xu, M., & Mossop, J. (1987). English proficiency and academic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students. *TESOL Quarterly*, 21, 251-161.
- Pyo, K.-H. (2001). Construct validation of a placement test: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English Teaching*, 56(4), 163-186.
- Ryu, R. (2013). A comparison of the in-house English placement test and TOEIC for placement purposes for a College English Program. *Modern English Education*, 14(4), 241-261.
- Wesche, M., Paribakht, S. T., & Ready, D. (1993). *A comparative study of four placement instrument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Language Testing Research Colloquium, Cambridge, England.
- Yu, K.-A., Moon, C.-Y., & Shin, S.-K. (2007). Placement practices in university English language programs in Korea. *Foreign Language Education*, 14(4), 27-48.

## APPENDIX

### CELA A2 task type and format

Reading /Writing		
Part	No. of Qs	Task Type and Format
1	5	Matching Matching five prompt sentences to eight notices, plus one example
2	5	3-option multiple choice Six sentences (including one integrated example) with connecting link of topic or story line.
3	10	3-option multiple choice Matching

		Five discrete 3-option multiple-choice items (plus an example) focusing on verbal exchange patterns. Five matching items (plus an integrated example) in a continuous dialogue, selecting from eight possible responses.
4	7	Right/Wrong/Doesn't say 3-option multiple choice One long text or three short texts adapted from authentic newspaper and magazine articles. Seven 3-option multiple-choice items or seven Right/Wrong/Doesn't say items, plus an integrated example.
5	8	Multiple-choice cloze A text adapted from an original source, for example encyclopaedia entries, newspaper and magazine articles. Eight 3-option multiple-choice items, plus an integrated example.
6	5	Word completion Five dictionary definition type sentences (plus one integrated example). Five words to identify and spell
7	10	Open cloze Text of type candidates could be expected to write, for example a short letter or email. Ten spaces to fill with one word (plus an integrated example) which must be spelled correctly.
8	5	Information transfer One or two short input texts, authentic in nature (notes, adverts etc.) to prompt completion of an output text (form, note, etc.)
9	1	Guided writing Either a short input text or rubric to prompt a written response. Three messages to communicate.
Listening		
Part	No. of Qs	Task Type and Format
1	5	3-option multiple choice Short neutral or informal dialogues. Five discrete 3-option multiple choice items with visuals, plus one example.
2	5	Matching Longer informal dialogue. Five items (plus one integrated example) and eight options.
3	5	3-option multiple choice Longer informal or neutral dialogue. Five 3-option multiple-choice items (plus an integrated example).
4	5	Gap-fill Longer neutral or informal dialogue. Five gaps to fill with one or more words or numbers, plus an integrated example. Recognisable spelling is accepted, except with very high frequency words, e.g. 'bus', 'red;', or if spelling is dictated.
5	5	Gap-fill Longer neutral or informal monologue. Five gaps to fill with one or more words or numbers, plus an integrated example. Recognisable spelling is accepted, except with very high frequency words, e.g. 'bus', 'red;', or if spelling is dictated.
Speaking		
Part	Timing	Task Type and Format
1	5~6	Each candidate interacts with the interlocutor. The interlocutor asks the candidates questions.

		The interlocutor follows an interlocutor frame to guide the conversation, ensure standardization and control level of input.
2	3~4	Candidates interact with each other. The interlocutor sets up the activity using a standardised rubric. Candidates ask and answer questions using prompt material.